SK그룹, 국가유공자 지원활동 확대

SK그룹이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SK는 최근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 부부 100쌍을 위커힐 호텔로 초청해 1박2일 숙박 패키지를 제공했다.

유공자 부부들은 기념촬영과 함께 러브문패 만들기, 행복날개 부부 언약서 작성을 통해 서로간의 정과 사랑을 일깨웠다.

SK는 2004년부터 국가유공자 부부를 위한 행사를 마련해 3년 동안 총 313쌍을 초청했다.

SKC는 5월 90여명의 임직원이 유관순 열사 사적지 개보수 작업과 환경정화작업에 참가했으며, 4월에는 독립유공자 조동빈(83)옹과 다른 유족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SKC는 2월 대전지방보훈청, 천안시청, 병천 초등학교, 병천 중·고등학교 등과 애국선열의 독립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추진 및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또 2005년 11월부터 독립운동 뿌리 지킴이 운동을 전개해 천안지역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을 후원해왔다.

SK텔레콤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가입비 면제와 기본료 및 통화료 3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SK그룹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사회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관련 사업을 다른 관계사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08>